

KIA 안치홍의 2012 “야구,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안치홍에게 2012년은?”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안치홍은 “야구를 다시 사랑하게 된 해”라고 답했다. 프로 4년차, 22살의 어린 선수가 야구를 미워하게 됐던 이유 그리고 다시 사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기록은 합격 마음은 실망

KIA 안치홍은 올 시즌 132경기에 출전해 141안타(최다 안타 6위·타율 0.288), 64타점 20도루를 기록하며 내년 시즌 7500만원 인상된 2억원의 연봉을 약속 받았다. 기록상으로는 ‘합격 점’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안치홍에게 올 시즌 그라운드에는 괴로운 곳이었다. 안치홍은 “성적은 괜찮게 나왔지만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 내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의식하게 되고 실수가 많았다”며 “야구를 생각하면 재미있어서 했던 기억이 많은데 올해는 힘들기만 했다. 야구장이 답답해서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개막과 함께 시작된 실책, 천연잔디 교체에 따른 적응 과정 등 수비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타석에 대한 부담도 더해졌다. 거침없이 달려온 안치홍에게 찾아온 첫 위기였다. 서울고 시절부터 대어로 주목을 받

은 안치홍은 2009년 입단 첫째 거침없는 타격과 안정된 수비로 주전 자리를 꿰차며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한국시리즈 최연소 홈런 타이틀을 차지했다. 2년차 징크스도 없었다. 타율을 0.291로 끌어올린 2010년 전경기출장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3할 고지를 넘어 서며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연습벌레’ 안치홍은 위기 탈출을 위해 자신을 혹독하게 몰았다.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경기장에 일찍 나와 자을 훈련을 했다. 하지만 끝내 마음의 짐을 털어내지 못한 채 올 시즌이 끝났다.

마무리 캠프서 자신감 찾아

그래서 ‘자신감 회복’을 목표로 마무리 캠프에 공을 들였다. 안치홍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소독이 많았다. 뛰든지 많이 연습하고 준비를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극복됐다”고 캠프를 평가했다. 태극마크와 골든글러브에 대한 아쉬움은 자신을 체질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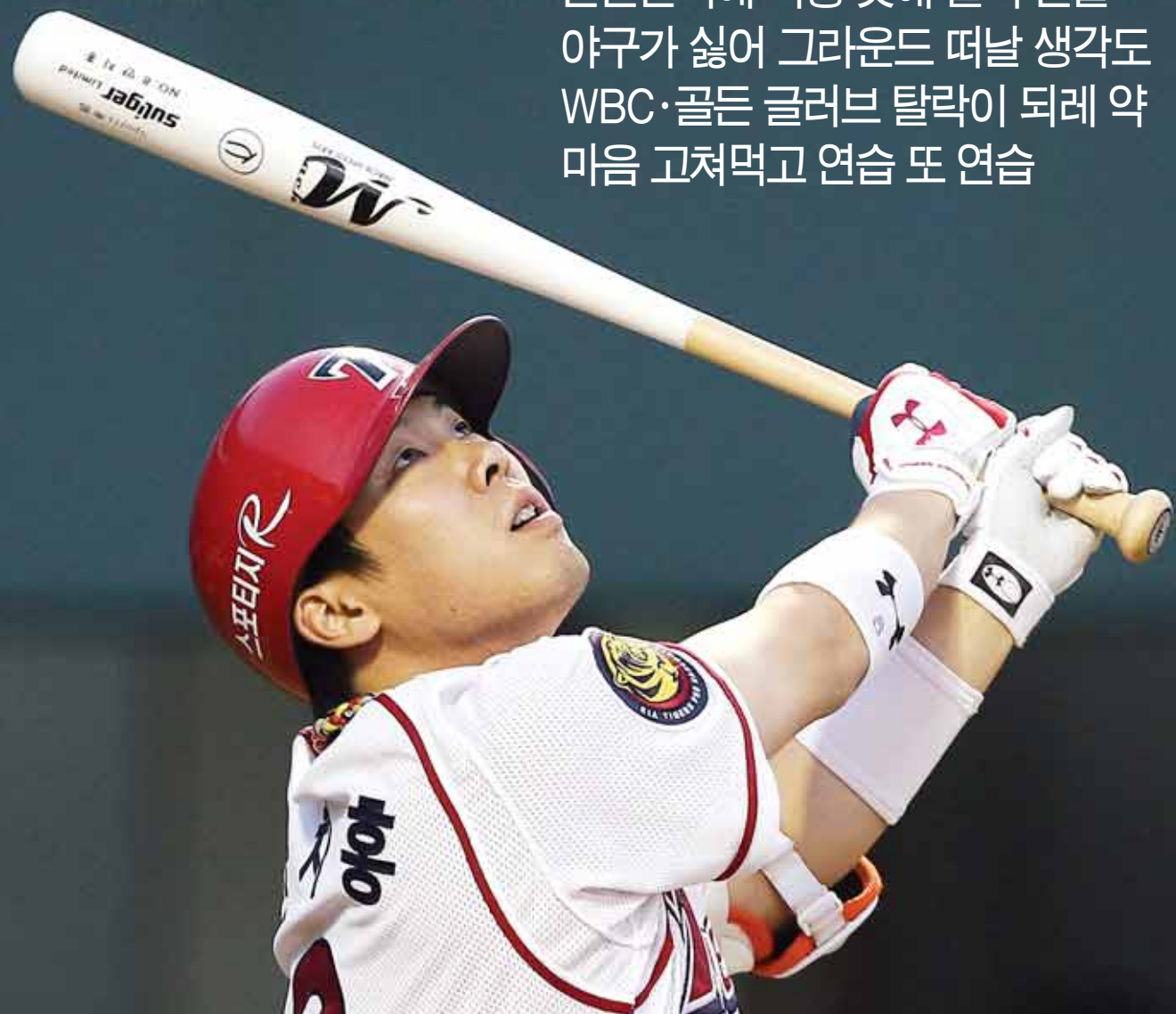
안치홍은 “국가대표는 모든 선수들의 꿈이다. WBC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아쉽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다. ‘내가 잘했다면 외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나를 평가해왔다. 2014 아시안게임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엔 더 강해져야죠”

또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발표되고 잠시 멍했지만 내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나중에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야구가 싫고 힘들었다. 그런 마음으로 야구를 했던 시즌에 상을 받으면 해이해진 상태로 계속 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승승장구하던 안치홍에게 ‘실패’의 약이 됐다. 안치홍은 “올 시즌 힘들었고, 골든글러브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마음을 굳게 먹게 해준 계기가 됐다. 야구를 예전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 같다”며 “그동안 과반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다. 더 강한 모습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졸신인 첫 해 ‘미스터 올스타’ 3년차에 3할·골든 글러브 수상 그러나 악몽같은 올 시즌 천연잔디에 적응 못해 실책 연발 야구가 싫어 그라운드 떠날 생각도 WBC·골든 글러브 탈락이 되레 약 마음 고쳐먹고 연습 또 연습



김진우 8년만에 억소리

연봉 1억천만원 계약
안치홍은 2억원 돌파

KIA 타이거즈의 김진우가 역대 연봉자 대열에 재합류했다.

KIA 투수 김진우가 올 시즌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인상된 1억1000만원(인상률 175%)에 연봉 재계약을 끝냈다. 1억원의 연봉을 받았던 2004년 이후 8년 만의 역대 연봉이다.

지난해 그라운드에 복귀한 김진우는 올 시즌에는 선발 임무를 맡아 2.90의 방어율로 10승5패를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안치홍은 1억2500만원에서 7500만원 인

상된 2억원(인상률 60%)에 재계약 도장을 찍으며 연봉이 수직 상승했다. 외야에서 ‘깜짝활약’을 선보인 이준호의 연봉도 26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면서 169.2%(4400만원)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부상으로 고전한 투수 한기주는 1억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삭감됐고, 박경태(4600만원)와 심동섭(4500만원)도 각각 600만원과 3000만원이 깎였다.

한편 KIA는 2013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8명 중 21명과 재계약을 마쳤다. 인상자는 16명이고, 동결 1명, 삭감은 4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진우



“어게인 2002” 16일 오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올림픽대표팀 감독 홍명보 자선축구 경기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2’에서 코치팀 선수들이 2002년 월드컵때 선보였던 세레머니를 다시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산타’들이 전하는 사랑과 희망

홍명보 자선축구 열려

‘축구 산타’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를 통해 사랑과 희망을 나눴다. 홍명보장학재단은 16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세이 드림 풋볼 매치 2012’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2003년부터 해마다 성탄절에 자선 축구 경기로 개최되다 지난해부터 실내에서 5대5 풋살 경기로 열리고 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자선경기는 런던올림픽 대표 선수로 구성된 ‘희망팀’과 K리그

올스타로 꾸려진 ‘사랑팀’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재단 이사장인 홍명보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희망팀에는 김태영·박진하·김봉수 코치, 이범영(부산), 정성룡(수원), 오재석(강원), 윤석영(전남), 김영권(광주), 황석호(히로시마), 김창수, 박종우(이상 부산), 정우영(교토상가), 김민우(사간도스) 등 런던올림픽 동메달 주역들이 동참했다. 이에 맞서는 사랑팀에는 최용수 서울 감독의 지휘 아래 안정환 K리그 명예홍보팀장, 이승기(광주), 신광훈·황진성(이상 포

항), 송진형(제주), 김병지(경남), 김용대(서울), 김병범(대전), 하대성(서울), 정인환(인천), 권순형·배일환(이상 제주), 김남일(인천) 등이 승선했다. 홍명보 재단 장학생 출신인 가수 구자명과 개그맨 서경석은 희망팀에, 개그맨 이수근, 가수 김중국은 사랑팀에 초청됐다. 이날 경기는 사랑팀의 8-7로 승리로 끝났지만 양팀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박진감 넘치는 골 장면과 재치 넘치는 골 뒤풀이 등으로 경기장을 가득 채운 1만여 관중에 볼거리와 웃음을 선사했다. /연합뉴스

양학선 도요타컵 도마 우승

평균점수 16.137점

한국 체조 첫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인 양학선(20·한국체대)이 일본 초청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양학선은 16일 일본 도요타에서 열린 도요타컵 기계체조 초청대회 도마 종목에서 평균점수 16.137점으로 1위를 차지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위용을 뽐냈다. 종목별 결승 개인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는 일본·독일·캐나다·홍콩 등 세계 각국에서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한국에서는

양학선만 출전했다. 양학선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이 대회에 출전했지만, 당시 실수를 해 5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시기에서 ‘여2’, 2차 시기에서 ‘쓰카하라 트리플’에 성공하며 참가 선수 중 유일하게 평균 16점대를 받았다. 양학선은 전날 링 종목에서는 13.100점을 받아 7위에 올랐다. 대회를 마친 양학선은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연합뉴스

광주시생활체육회 2012 유공자 시상

광주시생활체육회가 17일 ‘2012 광주시생활체육회 유공자 시상식’을 갖는다. 시상식은 오후 5시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열리며 윤이중, 백남길 부회장과 5명은 생활체육진흥유공부문 광주시장상을 받는다. 위촉형 게이트볼연합회장 김명배 테니스연합회장 등 4명은 종목별연합회부부, 강수호 어르신전담지도자 등 6명은 생활체육지도자부에서 광주시장상을 수상한다. 김유지 이사, 김선주 이사 등 4명은 진흥유공자로 선정돼 시생활체육회장상을 받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pecial
신양고객감사 특별 상설 뷔페
일시 2012.12.24~12.25/12.31/새해 1.1 장소 호텔 1층, 스카이라운지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문의 및 예약
062)221-4101~3
062)228-8000

특별 상설 뷔페 요금
성인 ₩30,000
아동 ₩20,000 (부가세 별도)
신양 스페셜 서비스
점심 와인 한잔
저녁 미니케익 제공